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잡아라!

군산시, 다양한 시민참여위원회 활동 지원

군산시는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구성된 시민참여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2021년 시민참여위원회 정기총회. 2021. 9. 29.(수) 10:30 장소: 군산시청 4층 회의실

시민참여위원회는 지난 2019년 9월에 구성돼 11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나, 시민대표단 공약이행령 '가단', '비대면 토론회' 등의 활동을 그간 비대면으로 추진해왔다.

이런 정기총회에서는 그동안 각 분과별 위원장 체계로 운영되던 조직을 총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발을 통해 운영체계를 일원화 하고, 향후 전체회의 개최의 정례화 등 시민참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비대면회의를 통해 제시한 경제, 문화 복지, 안전 4개 분야 24개 정책제안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시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실현가능성 및 보완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민선7기 핵심공약중에 하나가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라며 "시민참여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참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가 지난 2019년에 구성된 시민참여위원회의는 시민대표, 전문가, 시의원 등 30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정발전에 관한 정책건의,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위원회로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남북교류 시작을 알리는 '군산시'

사업의 밑거름 10억 기금 조성... 5개 분야 심도있는 논의 이어져

군산시는 남북교류협력법(21.3월) 개정으로 교류주체가 기초자치단체도 가능해져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 경제계, 언론계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주요 기능은 남북교

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과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다.

이날 회의는 남북교류협력위원 위촉장 수여와 남북교류협력사업 현황 설명, 부위원장 호선,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해 발굴된 5개 분야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과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견을 내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우리지역의 강점과 경쟁력을 가진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첫 회의를 계기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초석을 다지겠다"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2021 청소년 자원봉사 온라인 박람회' 개최

군산시는 지난 28일 2021 청소년 자원봉사 온라인 박람회를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청소년유관기관 단체 공공기관 등이 온라인 박람회에 참가했다. 또 온라인박람회 현장에는 군산장애

인종합복지관,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청소년 영어동아리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했다. 온라인 화상회의사이트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기관소개 및 장애인 인식교육, 기후변화교육, 인성교육 등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미리 학생들에게 전달된 키트를 가지고 팹아트 제작, 미니 풍력발전기, 양말목공예 등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의 시간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다양한 비대면 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 체험의 장을 시도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남영복 기자



원광대학교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동리 운영 활성화와 혁신성장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29일 체결했다.

'새마을운동은 경제발전의 한류'

원광대·새마을운동중앙회, 공동사업 개발협력 강화

원광대학교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동리 운영 활성화와 혁신성장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29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가와 지역발전, 인재양성 등을 위한 상호협력력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대학생 새마을운동 동아리 설치·지원, 지역 혁신성장 연계 공동사업 개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새마을운동 봉사활동 관련 프로그램 참여, 교육·학술 관련 연구 참여 등에 대한 우의를 증진한다.

박맹수 총장은 "새마을운동은 경제발전 모델의 전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널리 알려진 한류라고 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마을운동이 지난 세계사적 가치를 높이고 원광대도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위해 젊은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광대도 새마을운동 동아리 운영 활성화와 혁신성장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29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가와 지역발전, 인재양성 등을 위한 상호협력력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한편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국내 대학과 동아리 운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MZ세대와의 소통, 시대변화에 발맞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뉴시스

군산새싹어린이집, 수송동에 바자회 수익금 기탁

군산시 수송동은 새싹어린이집(원장 최효순)원생들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바자회 행사 판매수익금 전액인 151만원을 기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원생들이 아끼던 옷과 장난감 등을 바자회 형식을 통해 판매한 수익금으로 마련됐으며, 이는 관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효순 원장은 "바자회 수익금 기탁은 작은 나눔으로 큰 사랑을 실천하는 어린이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학부모와 아이들의 마음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필 수송동장은 "온정의 손길로 모아준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남영복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사회적경제 한마당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

익산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과 중요성 진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오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익산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사회적경제 한마당은 익산시가 주최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관한다.

이 행사에는 사회적기업협의회, 마을기업협의회, 협동조합협의회, 자활기업협의회 등이 참여한다.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호응도를 높이고 시민과 그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서는 60여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체험·판매 부스가 운영된다.

시는 이번 자리를 통해 취약계층 권익구제와 일자리창출 지원에 노력해온 사회적경제기업인들에게 포상장을 수여하고 격려한다. 또 오늘 '워드 코로너19 사회적경제정책개발'을 주제로 정책 포럼이 펼쳐진다.

/뉴시스

군산시, 올해 6월 1일 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군산시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발주택 121호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발주택가격은 2021년 1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부속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해 가격신청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치고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돼 30일자로 결정·공시된다.

개발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세무과(☎ 454-2410) 및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의 개발주택가격 재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 후 오는 11월 28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군산=고병만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